

15 | 케이블 유지 보수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원발성 폐암

성별	남	나이	44세	직종	케이블 유지 보수업	업무관련성	낮음
----	---	----	-----	----	------------	-------	----

1 | 개 요

근로자 K는 1988년부터 가정집 전화선로 유지 보수 작업 및 케이블 유지 보수 작업을 담당하였고 2008년 12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2 | 작업내용 및 환경

근로자 K는 A사에 1988년 입사하여 가정집 전화선로 유지 보수 작업을 하였고, 2000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케이블의 유지 보수 업무 및 신축 건물 인입 및 재배선 작업을 하였다. K는 천장 케이블 작업 시 보온재, 내화피복재, 천장재 및 아파트 공동구 케이블 작업시 보온재의 석면에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광케이블 보호재가 석면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들 고형시료의 분석결과 석면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천장 케이블 작업시 채취한 공기중 시료 분석결과 섬유상 물질은 노출기준 미만으로 검출되었다. 과거와 다른 작업 조건인지에 대해 확인하였을 때 K는 작업환경의 특별한 변화는 없다고 하였다.

3 | 의학적 소견

근로자 K는 18년간량 흡연력이 있으며 폐암 가족력은 없었고, 거주지역이 분진노출을 포함하여 유해한 환경이 있는 곳은 아니었다. 1988년 A사에 입사하여 2000년부터 케이블 작업을 해오던 중 2008년 11월 16일 갑자기 몸살 기

운 및 오한이 있어 개인 내과의를 경유 2008년 12월 4일 폐암 진단을 받았다. 석면은 국제암연구회(IARC)가 직업성 발암물질로 분류한 물질 중의 하나이며, 석면에 처음 노출 된 후 30~35년 뒤에 폐암 발생율이 최고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천장 케이블 작업의 작업환경측정이 단지 1개 건물에서만 시행한 한계가 있었지만 석면이 함유된 물질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근로자가 작업한 건축물 중에서 석면이 함유된 천장재 등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 노출 수준은 이번 조사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감안하였을 때 기준치 미만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작업경력을 보면 K는 유해인자에 노출된 후 상기질병의 발생까지 대략 8년으로, 일반적인 폐암 유발물질의 직업적 노출에 의한 폐암 발생의 잠재기에 비해 짧다. 또한 현재까지의 인조 유리섬유와 폐암과의 관련 문헌을 고찰한 결과 K의 인조 유리섬유 노출력과 폐암과의 관련성은 인정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4 결 론

K는 폐암으로 확진되었는데,

- ① 폐암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석면에 노출된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 ② 케이블 작업 경력이 8년으로 폐암 발생의 잠재기가 짧으므로

현재의 결과만을 가지고 작업관련성을 판단할 때, 작업 중 노출된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